

退溪의 孝友歌 研究

慶北大學校 教授 徐 元 燮

《目 次》	
I. 序 言	3. 素 材
II. 作 品 攷	4. 形 式
1. 〈孝友歌〉全文	III. 結 言
2. 內 容	

I. 序 言

韓國 詩歌 중에서 時調는 고려 中葉의 中・末 經에 詞腦歌로부터 派生하여 고려 末 葉初(高宗代)에 와서 時調形으로 형성되었고, 歌辭는 고려 末葉末에 時調에서 派生하여 形成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는 이들을 표기할 수 있는 國字가 없었기 때문에 창작되어 주로 口碑・口誦・歌唱으로 傳承되어 오다가 조선조에 들어와서 한글 창제에 힘입어 비로소 문자에 정착되었고, 또 이는 이후 활발하게 창작이 이루어졌다.

時調와 歌辭의 作者를 보면 위로는 君王으로부터 아래로는 妓女에 이르고 있는데 作者의 主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兩班・士大夫와 士大夫家의 婦女들과 平民들이었다. 이들 많은 作者 중에서 時調文學에서는 孤山 尹善道를, 歌辭文學에서는 松江 鄭澈을 第一人者로 꼽고 있다.

그런데, 兩班・士大夫 作者들은 대개가 時調와 歌辭를 창작하는 것을 漢詩의 餘技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 士大夫 作者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글을 조선조 中葉을 대표하는 漢文四大家의 一人인 象村 申欽의 「放翁詩餘序」에서 찾아 볼 수 있다.

中國之歌 備風雅而登載籍 我國所謂歌者 只足以爲賓筵之娛 用之風雅載則否焉 蓋語音殊也 中華之音 以言爲文 我國之音 待譯乃文故 我東非才彥之乏 而如樂府新聲無傳焉 可慨而亦 可謂野矣 余既歸田 世固棄我 而我且倦於世故矣 願平昔榮顯已糠粃士苴 惟遇物諷詠則 有馮夫下車之病 有所會心 輒形詩章而有餘 繼以方言而腔之而記之以諺 此僅下里折楊 無得懸壇一斑而其出於遊戲 或不無可觀 萬曆癸丑長至放翁 書于黔浦田舍¹⁾

1) 金天澤:「青丘永言」p. 37, 朝鮮珍書刊行會, 1948, 5, 30.

이는 時調文學과 歌辭文學에 있어 第一人者로 치고 있는 松江과 孤山에 있어서도 이들보다 별반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우리 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國字로써 창작할 필요성을 느낀 이는 없었다는 말인가?

결코 그렇다고는 볼 수 없다.

조선조 500년에 있어 朱子學을 集大成하여 東方夫子라고 추앙된 退溪는 일찌기「漢詩는 詠頌할 수는 있으나 歌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 歌唱코자 하면 우리 글자로 창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우리 國字로 창작할 필요성을 力說한 바 있었다.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蓋國俗音節 所不得不然也 故嘗略倣李歌 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 其一言志 其二言學²⁾

이를 보면, 退溪는 한국 시가에 대하여 깊이 理解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 詩歌에 대하여 一家見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의 일반 儒學者들이 漢詩의 餘技로서 時調와 歌辭를 지은 것과는 달리 退溪는 한글로써 우리 詩歌를 지을 필요성을 느끼고 時調와 歌辭를 지은 것이니 만큼 일반 作家와는 달리 작가 의식이 뚜렷하다고 본다.

하기에 筆者는 退溪를 「哲學者型的 道學者」로 규정하고 그의 哲學的 思想的인 측면만을 研究할 것이 아니라 「詩人・文學者型的 道學者」라는 면도 研究하여 退溪는 韓國詩歌史上 우리 시가에 대한 확고한 詩歌觀을 가지고 창작한 詩歌作家라는 새로운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하여 그의 時調와 歌辭를 연구하여 왔다.

이는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의 일환으로 圖試되고 있는 작업으로, 여태까지 살펴본 작품은 陶山十二曲・琴譜歌・勸義指路辭・樂貧歌・相杵歌 등이 있고,³⁾ 이번에는 孝友歌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런데, 筆寫本에는 이 歌辭의 標(表)題를 「李退溪先生孝友歌」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의 가사 제목이라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작자 자신이 스스로 「李退溪先生○○歌」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는 後人이 이 가사를 筆寫할 때 李退溪先生이 지은 孝友歌라는

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三, 二十三張.

3) 1. 陶山十二曲과 高山九曲과의 比較研究, 清溪金思燁博士頌壽記念論叢, 1973, 3, 23.

2. 退溪의 陶山十二曲 研究, 韓國의 哲學 2號, 1974, 12, 1.

3. 退溪의 琴譜歌 研究, 韓國의 哲學 3號, 1975, 12, 1.

4. 退溪의 勸義指路辭 研究, 韓國의 哲學 5號, 1977, 3, 1.

5. 李退溪의 詩歌文學(主로 時調와 歌辭), 韓國의 哲學 6號, 1977, 6, 1.

6. 退溪의 樂貧歌 研究, 韓國의 哲學 7號, 1978, 3, 1.

7. 李退溪의 詩歌文學, 日本李退溪研究會會報 4號, 1978, 3.

8. 退溪의 相杵歌 研究, 韓國의 哲學 8號, 1979, 12, 24.

뜻에서 「李退溪先生孝友歌」라는 표제를 붙였음이 분명하다.

하기에 필자는 이 가사의 제목을 「孝友歌」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II. 作 品 攷

1. 〈孝友歌〉⁴⁾ 全文

第一段	너희를	길러내어	므습일	흥라흥리
	인간의	홀일이야	수없이	만타마논
	다른일	다박리고	孝義나	흥여스라
	孝友곳	못흥오면	금슈의	갓가오리
	너희곳	흥라흥면	주세히	이르리라
第二段	아버이	조식의게	은정을	比케되면
	턴디와	갓툰지라	갑플주리	ㄱ이업다
	열살을	비실어쳐	세히곰	품의품고
	오좁종	밖내면서	안고지고	키우실제
	어르며	우이시며	구슬갓치	너기시사
	울면	비곱플가	치오면	버스논가
	상홀가	몬져보고	병들가	도라보고
	단좁	덜자고	낮분밤	덜먹고
	천신	만고흥야	계우구리	키워내어
	남자논	학문흥고	너조논	질습흥야
	다라며	우지즈며	사롭을	몬드라쳐
	男婚	女嫁흥야	사도록	흥시거든
	조식은	사나와	거의가	불효로다
	父의精	母의血로	저의몸	삼겨나쳐
	하늘노서	밧진드시	쌍으로서	소스다시
	아희제논	의지업쳐	부모를	성각다가
	夫妻를	ㄱ존후면	다이져	박리머라
	스지톨	덜노려쳐	효양을	아니흥고
	음식이나	맛나오면	자식먼져	성각머라
	父義가	가온후에	問問으란	아니흥고
	이것달나	저것달나	보칠줄만	아랫머라
	子情을	밀위어쳐	孝義의	움기오면
	뉘아니	大舜되며	뉘아니	曾參되리
	올치아닌	아버이논	만고의	임스오되
	사오나온	조식은	턴흥의	거의로다
	三生	奉養은	家系에	달녀시니

4) 이 孝友歌는 李相寶 교수 편저인 「韓國歌辭選集」에 소개된 것인데, 여기에서 全文을 옮겨신 것은 本稿가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의 일환으로 연구되는 작업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홀기리	업거니와	百里	負米야
나곳	항랴항면	무어시	어려오리
겨울날	竹筍듯고	어름곰귀	鯉魚나니
정성이	지극항면	효양이	어려올가
養親을	위 항아서	조식을	못돈말가
貫渠	心思논	현지에	비감항다
북당의	두어버이	봄빛시	느저가니
西山의	지논히를	센헐으로	미울소냐
庭上의	섯논梧桐	부지마라	항건마논
닌중의	잇논바름	날위 항야	긋칠소냐
어버이	죽은후의	소잡고	祭항야도
성전의	뚝항나만	홀기리	업논니라
林間의	더가마괴	鳥中の	미들이되
반포를	부디 항야	갑플줄을	알것마논
우리논	죄인으로	금슈만	못항야석
넙신	양명 항야	永訣을	죄였던가
진슈	美饌으로	효양을	항였던가
익이 홀	우리 부모	무엇 항러	키오신고
장장 홀	겨울밤의	좁업시	누어이셔
나 혼일	성각하니	늪웃웁이	마이업다
頑命이	못죽어서	세월만	보니면서
이모옴	서기논줄	늘드러	이르리오
청등을	도도오고	다시누어	성각항니
침상의	젓논눈물	大川이	되여잇니
너희도	나를보아	경계를	항아서라
어버이	꾸줄업을	辭色의	너지말고
어버이	항논일을	도곰도	違越말고
이모옴	조심 항야	儒禮를	상치말고
형신를	삼가 항야	羞恥을	죄지말고
효양을	항랴커든	십살이	항여스라
효양을	항온후의	우이를	점항여라

第三段	동성	형제논	부모로	되여스니
	얼골은	논호이나	氣血은	혼가지라
	혼집의	삼겨나서	혼것먹고	길너나서
	分門	割戶 항야	直系를	초른후의
	제안해	말만듯고	형제를	원망항며
	제자식	말만듯고	형제를	위위 항니
	전택을	닷토논동	노복을	닷토논동
	일척포	일두축을	相貸치	아니 항니
	牛飮	馬食을	머러워	못이룬다
	샅다가	푸논거시	전택이	무어시며
	잇다가	업논거시	노복이	무어시리

退溪의 孝友歌 研究

안히논	업다가도	어드면	안히오
조식은	업다가도	나흐면	조식이라
형제논	羽翼이라	우익업시	어디가며
형제논	슈족이라	슈족업시	어디가리
평상히	이신제논	봉우만치	못너저도
환난을	맞나오면	형제맞게	조잇노나
우리논	동성의계	우익논	못하여도
평성의	먹는경이	싸흠업시	사자하야
형의밥	논환먹고	아의옷	베쳐넵고
익년	화락으로	盡長토록	스자드니
반야	傷風의	慈兄이	부러지니
운간의	외길어기	어디로	가잔말고
풍우	對狀의	對面時를	청자하니
풍슈	營農의	동훈이	비상하다
桓山	四鳥논	저나도	우릴기든
寂寞	溝地에	어디가	만나볼고
半錦을	츄려넵고	좁의나	보자하니
실음이	하만하니	잠이나	드을소나
第四段	苫席의	부려안저	원갓일
우음다	세상사롭	대도를	청자하니
아마도	만단슈회물	못다일너	드리보쇼
			하노라

2. 內 容

이 歌辭는 李相寶 교수 편저인 「韓國歌辭選集」에는 「孝友歌」라는 제목으로 作品이 소개되어 있으나 筆寫本에는 「李退溪先生孝友歌」라는 表題가 붙어 있다.

孝友의 孝는 父母를 잘 섬기는 것을 말하고, 友는 兄弟 間に 友愛가 깊은 것을 말한다. 하기에 孝友라고 함은 父母에 대한 효도와 兄弟에 대한 友愛라는 뜻이다. 孝友는 또 孝悌라고도 한다.

孝友：善事父母爲孝 善兄弟曰友〔詩〕「侯誰在矣 張仲孝友」 晉書有孝友傳 列孝密王袁等十四人⁵⁾

孝悌：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有子 孔子弟子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弟)⁶⁾

父母에게 孝道하고 兄弟 間に 友愛할 것을 규정한 것은 五倫에도 나타나고 있다.

五倫：「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五者皆屬人倫 後世因稱爲五倫 倫 常也 謂人所常由之道也 亦作五常⁷⁾

5) 「辭源」(正續編 合訂本) 寅集, p.6, 臺灣商務印書館, 1939.

6) 「論語」卷之一, 學而第一.

7) 「辭源」(正續編 合訂本) 子集, p.73.

유교 국가인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 유교의 實踐道德 중에서 가장 根本이 되는 것은 三綱과 五倫이다. 이는 教育의 根本이 되고 人格 形成의 바탕이 된다.

또,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남에 따라서 自我를 認識하고 人間의 존엄성을 자각하게 되는데, 그 때부터 낳아 길러준 父母의 生育之恩을 깊이 느끼게 된다. 하기에 예로부터 父母의 生育之恩을 昊天罔極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孝經에서 孝는 德의 根本이고, 또 孝의 처음은 父母에게 받은 身體髮膚를 毀傷치 아니하는 것이고, 孝의 마침은 立身行道하여 이름을 떨쳐 父母를 顯著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고, 孝는 父母를 섬김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夫孝 德之本也……身體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立身行道 揚名於後世 以顯父母 孝之終也 夫孝始於事親⁸⁾

하기에 孝는 父母를 잘 섬기는 것을 말하고, 不孝는 父母를 잘 奉養치 못함을 말한다.

조선조 사회는 人倫을 가장 重視한 사회이기에 綱常五倫에 대한 詩歌 또한 많다. 歌辭로는 退溪의 勸義指路辭, 栗谷의 自警別曲, 閔中行實歌・戒兒歌・戒女歌系 內房歌辭 등이 있고, 時調로는 周世鵬의 五倫歌, 金尙容의 五倫歌, 朴仁老의 五倫歌, 郎原君의 五倫歌 등을 비롯한 思親孝道の 時調가 많다.

이 중에서 몇 首의 시조를 보기로 하겠다.

아버님	탈나흔시고	어마님	탈기르시니
父母웃	아니시면	내몸이	엎실낫다
이德을	감히려하니	하늘마이	엎스샷다

〈校本歷代時調全書 1821〉

王祥의	鯉魚잡고	孟宗의	竹筍억거
검던멀리	희도록	老萊子의	오슬입고
一生애	養志誠孝를	曾子갓치	하리이다

〈同書 2139〉

前者는 愼齋 周世鵬의 五倫歌 6首 중의 1首이고, 後者는 蘆溪 朴仁老의 時調로, 이들 두 首는 모두 父生母育之恩이 마치 昊天罔極과 같아서 다 갚기가 어렵기에 曾子같이 誠孝를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

다음, 兄弟 간의 友愛를 노래한 時調도 있다.

江原道	百姓들아	兄弟송스	헝디마라
종위	밭위논	엇기에	쉽거니와
어되가	또어들거시라	홀깃할것	헝는다

〈同書 108〉

8) 「集註孝經」 pp. 4・5, 朝鮮圖書株式會社, 1925, 9, 30.

退溪의 孝友歌 研究

한氣血 노나라서 兄弟男妹 되얏시니
저몸의 疾痛飢寒 니當허나 다를소나
아마도 同生의저혈닐을 니가몬져 킬리로다

〈校本歷代時調全書 3156〉

前者는 松江 鄭澈의 시조이고, 後者는 三竹 趙槐의 訓民歌 10首 중 1首로, 이 두首는 모두 兄弟 간 孝友할 것을 당부한 시조이다.

孝友歌는 父母에게 효도하고 兄弟 간에 友愛할 것을 敎誨하는 일종의 道德敎訓의인 가사이다.

이제, 本歌를 그 문맥에 따라 4段으로 分段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第一段

「너희를 길러내여 브습일 흥라흥리
…………〈中略〉…………
너희곳 흥라흥면 쯔세히 이르리라」

제 1 단은 5節(行) 10句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緒詞라 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생을 누리는 동안 할 일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實行해야 할 것은 孝義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孝友를 못하면 그 사람은 금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기에 만약 孝友를 實踐하려고 한다면 이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第二段

「아버이 조식의게 은정을 비케되면
…………〈中略〉…………
효양을 흥은후의 우익를 겸흥여라」

제 2 단은 57節 114句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思親孝道 곧 孝養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또, 제 2 단은 4개의 項目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 항은 「아버이 조식의게 은정을 비케되면…… 조식은 사나와 거의가 不孝로다」까지의 13節(行) 26句가 되는데, 이에서는 父母와 子女 간에 恩情을 비교하면 天地와 같은 것이라 反哺코자 하면 끝이 없음을 말하고 난 후 父母가 자식을 낳아 오줌 똥을 받아내고 병들까 걱정하며 단잠도 자지않고 온갖 고생을 하며 키워서 男子는 學問케 하고 女子는 길삼을 가르쳐 結婚을 시켜놓으면 거의가 不孝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제 2 항은 「父의精 母의血로 저의몸 삼겨나서……뉘아니 대순되며 뉘아니 증삼되리」까지의 10節 20句가 되는데, 이에서는 결혼 전에는 父母만을 의지하고 順從하며 섬기다가 일단 아내를 얻게되면 그 때부터는 妻子息에만 정성을 쏟으니, 그 정성을 孝

養에 들릴 것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大舜과 曾參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 3 항은 「울치아닌 아버이는 만고의 업소오디……익이훈 우리부모 무엇하려 키오 신고」까지의 21節 42句가 되는데, 이에서는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父母는 한 사람도 없지만 不孝스런 子息은 天下에 많다는 것을 말하고, 父母를 三生에 걸쳐 奉養함은 어렵다고 하겠지만 孔子의 弟子 仲由처럼 父母를 위해서 百里 負米하는 孝養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옛날 大孝인 孟宗・王祥・郭巨 등은 養親을 위한 지극한 孝誠으로 겨울철 竹筍과 얼음 구멍에서 잉어를 얻었고, 子息까지도 묻을려고 했다는 故事를 말하고 北堂의 父母는 점점 늙어가니 死後에 소잡고 성대하게 祭祠를 지내기 보다는 生前에 닭 한 마리를 잡아 봉양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微物인 까마귀도 反哺之報를 하거늘 하물며 萬物의 영장인 사람이 금수만 못하여 어찌하겠는가 탓하고 있다.

제 4 항은 「장장호 겨울밤의 좁업시 누어이서……효양을 흥은후의 우익톨 겸혀라」까지의 13節 26句가 되는데, 이에서는 긴긴 겨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서 자리에 누어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니 後悔莫及이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몸부림친다. 자비들은 부디 悔恨에 호느기는 나를 겨울삼아 父母의 꾸짖음을 辭色하지 말고 항상 行身을 조심하고 삼가해서 父母에게 욕되게 하지 말고 孝養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第三段

「동성 형제는 부모로 되어스니

……………〈中略〉……………

실음이 하만하니 잠이나 드을소냐」

제 3 단은 29節 58句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兄友弟恭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또 이 3단은 2項目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 항은 「동성 형제는 부모로 되어스니……환난을 만나오면 형제뵈게 쏘잇느냐」까지의 17節 34句로 되어 있는데, 이에서는 兄弟란 같은 父母에게서 氣血을 나누어 태어나서 友愛있게 자라다가도 결혼을 하고서는 妻子의 말만 듣고 兄弟를 원망하고 미워할 뿐 아니라 田宅과 奴僕를 가지고 서로 다투며 不和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田宅과 奴僕이란 사고 팔고, 있고 없고 하는 것이고, 아내와 자녀란 얻고 잃으면 되는 것인데, 兄弟란 새와 사람에게는 마치 羽翼과 手足과 같은 것이다. 잘 있을 때의 兄弟란 벗보다 나을 것이 없을 듯이 여겨지나 患難을 만났을 때는 兄弟 밖에 서로 도우미가 없음을 말하며 兄弟 간에 友愛할 것을 당부한다.

제 2 항은 「우리는 동성의게 우익은 못하여도……실음이 하만하니 잠이나 드을소냐」

退溪의 孝友歌 研究

까지의 12節 24句로 되어 있는데, 이에서는 兄弟 간에 밥과 옷을 서로 나누어 먹고 입고 하면서 평생토록 싸움없이 和樂하게 지내자고 다짐했으나 傷風으로 兄을 여의고 그 兄을 생각해서 잠 못들어하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第四段

「점석의 부려안져 원갓일 생각하니
.....〈中略〉.....
아마도 단단슈죄를 못다일니 흥노라」

제 4 단은 3節 6句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歌辭의 結詞에 해당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思親孝道하고 兄友弟恭하는 孝友의 大道를 행할 것을 말하고, 萬端愁懷로 모두 敎誨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끝맺고 있다.

3. 素 材

素材는 한 마디로 말해서 예술 작품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말하는데, 「文章의 소재는 1) 풍부성과 多樣性 2) 확실성 3) 주제를 밀받침하는 것 4) 필자와 독자의 關心性 등을 갖추어야 한다.」⁹⁾

孝友歌에 사용된 소재는 다음 표와 같다.

素 材	子息	어버이	兄弟	孝養	싱각	일(事)	後	나(我)	父母	우리	너희	저·제 (自己)
頻 度 數	8	6	6	6	6	6	5	4	3	3	3	3
素 材	세(際)	누·누 (誰)	(단)잡	안해 (妻)	同生	友愛	막음	사름	手足	田宅	奴僕	말(言)
頻 度 數	3	3	3	3	2	2	2	2	2	2	2	2
素 材	情	금슈	겨울 (冬)	羽翼	어딘 (處)	밥	男子	女子	學問	男婚	女嫁	父
頻 度 數	2	2	2	2	2	2	1	1	1	1	1	1
素 材	母	孝義	孝友	恩情	不孝	奉養	父義	子情	北堂	養親	兄	慈兄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아의 (弟)	精誠	夫妻	四肢	아희	살(女)	길습	朋友	和樂	珍羞	美饌	飮食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家系	直系	훈것	훈집	三生	平生	百里	負米	大舜	曾參	竹筍	鯉魚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平常	血	몸	힘(力)	눈물	얼굴	氣血	警戒	操心	辭色	行身	羞辱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9) 文德守: 「世界文藝大辭典」 上卷, p.1108, 成文閣, 1975.

素 材	儒禮	옷	布	粟	一尺	一斗	天地	상(地)	하늘	갑(값)	가마괴	鳥中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反哺	立身	揚名	微物	鶩(鶩)	소(牛)	牛飲	馬食	頑命	靑燈	寢床	人間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두(二)	세(三)	열(十)	오름	똥	病	患難	痛恨	실음 (愁)	히(歲)	歲月	구슬 (玉)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千辛	萬苦	萬古	天下	날(日)	얼음 (氷)	窟(穴)	至極	心思	現在	悲感	봄빛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西山	히(日)	庭上	梧桐	天中	바람	제(祭)	生前	林間	罪人	永訣	밤(夜)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大川	밖(外)	세상	百年	半夜	大道	傷風	雲間	외길 어기	營農	非常	恒山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四鳥	꿈	萬端	風雨	對面	時	風水	寂莫	溝地	半錦	愁懷	苫席
頻 度 數	1	1	1	1	1	1	1	1	1	1	1	1
素 材	怨望	貫渠	分門	割戶	違越							
頻 度 數	1	1	1	1	1							

위의 표에 의하면 孝友歌에 사용된 소재는 모두 173 종류이다.

이 가사가 孝友歌이니 만큼 思親孝道와 兄友弟恭에 관한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빈도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173 종류나 되는 소재를 모두 다루기는 어려울 듯하여 孝友歌와 관련성이 많은 소재만을 보기로 한다.

먼저, 孝友歌에 가장 많이 사용된 소재는 子息으로, 8회의 사용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고, 딸이 1회 사용되고 있다.

子息은 아들과 딸의 총칭으로, 辭源에도 이를 「所生之通稱〔東觀漢記〕此蓋我子息也」¹⁰⁾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국 시가에서는 이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고려가요에는 子息이란 소재를 사용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시조와 가사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본다.

趙梶의 시조(人道行)에

父母의 一生精力 子息으로 竭혀거다
 十朔後 成童前에 바라너니 成人이라
 아마도 人子の道理는 本性中에 있나니라

〈校本歷代時調全書 1295〉

10) 「辭源」(正續編 合訂本) 寅集, p.1.

라고 하여 子息이란 소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綱常五倫의 시조로, 子息이란 그 父母가 없으면 태어날 수 없음을 잘 알고 父母에게 孝道를 다 하라는 내용으로 主題面에서 孝友歌와 같다고 하겠다.

또, 栗谷 李珥의 가사인 自警別曲에도 子息이란 소재가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빛스름의 흥던뒤로 後生은 비와 흥서
具慶之下 子息되야 衣不純素 흥여넘고
孤哀子 되엇거든 服不純采 흥거시라……

그런데, 우리 시가에는 子息이라는 漢字 용어보다는 아들이란 우리말 용어가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곳구릉 우논소리에 낮잠지여 이러보니
저근아달글이르고 며늘아기벼췌는뒤 어린孫子는 쫓노리홀나
마초아 지어미술거로며 맛보라고 흥더라
〈校本歷代時調全書 193〉

둘째, 어버이(6회)와 父母(3회), 또 父와 母・北堂(각 1회)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어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 일컫는 순 우리말 어휘이고, 父母는 이의 漢字 어휘이다.

北堂은 원래 중국에서 집의 북쪽에 있는 堂으로 主婦가 있는 곳이란 뜻과 어머니의 뜻이 있는데, 우리 詩歌에서는 주로 어머니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辭源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北堂 俗稱母爲北堂 取義於詩之焉得叢草 言樹之背 背 北堂也¹¹⁾

이들 소재들의 사용 빈도수를 합하면 12회가 되어 孝友歌의 소재로는 그 사용빈도수가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 소재는 우리 詩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시조에서 보기로 하겠다.

어버이 子息스이 하늘삼긴 至親이라
부모곳 아니면 이몸이 이실소나
烏鳥도 反哺를 흥니 父母孝道 흥여라

〈同書 1919〉

萬勻을 늘려내야 길게길게 노홀쏘아
九萬里 長天에 가느히를 자바미야

11) 「辭源」(正續編 合訂本) 子集 p.218.

北堂의 鶴髮雙親을 더되늘게 향리이다

〈校本歷代時調全書 968〉

前者는 金尚容의 五倫歌 중 父子之倫으로, 어버이와 父母가 소재로 사용되어 있고
後者는 朴仁老의 시조로 北堂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소재는 시조 뿐만 아니라 가사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입의마른 飮食이며 슬허앗는 衣服等物
뜻과마음 가치향니 父母오직 便향신가……
居家의 향기선일 어버이 불너지든
입의밥을 피아트며 손씻거슬 더져두고
對答단 幸혀말고 맛비맛비 달라가서
무삼닐을 시켜시든 盡心竭力 服從하라

〈自警別曲〉

邑之以南 三十里의 一抹青山 巍巍향여
八鶴洞裏 지니와서 一脈鷹峰 되여서라……
鷹峰아뒤 터를닫고 이니人生 스라서라
主聖臣良 이世上의 향용염시 安土향야
得仁山上 仁을어더 親親爲大 養親향니
孝誠이야 至極홀가 北堂安寧 바티서라

〈樂志歌〉

앞의 가사는 李珣의 自警別曲인데, 시조에서와 같이 이 가사에도 어버이와 父母가 소재로 사용되어 있고, 뒤의 가사는 李緒의 樂志歌로, 이는 仲長統의 樂志論을 사숙하여 작자가 田園에 閒居하여 麋鹿과 벗하며 聖賢들의 청빈한 처세를 양모한 것인데, 北堂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退溪가 쓴 「甲辰乞勿絕倭使疏」에 보면 父母와 자식에 대하여 쓴 기록이 있다.

諺云驕子罵母 夫家人之子 不預防檢則必至於驕 驕而不止或至於罵 是子雖不予 使子至此 亦父母之過也¹²⁾

또, 그의 漢詩인 「歲季得鄉書書懷」에는 北堂을 소재로 한 것이 있다.

鄉書十數紙 字字親舊筆
晨興忽滿眼 讀盡更一一
豈不喜平安 喜多情轉鬱
憶我辭北堂 霜風菊花節
西來何所爲 悶默繫袍笏
但知趁公務 不暇憂病骨

12) 「退溪先生文集」卷之六, 甲辰乞勿絕倭使疏, 十二張.

馳光忽不淹 逼此歲除日
客枕多憂思 寬夢輒飛越
撫躬良自愧 報國亦云缺
胡不早收愚 歸安在蓬蓽
力耕給公上 甘旨奉怡悅
茲誠分所宜 久矣不自決
強顏名利藪 掩抑徒自失
猶能得酒狂 無計學真訣
敝衣屢欲典 瓶粟行告竭
宦情易成歇 鄉心不可遏
感此遠飭意 珍重不在物
兒童豈知此 呼呌索梨栗
床前有筆硯 長吟聊自述¹³⁾

세째로, 孝道에 관한 소재를 보면 孝養이 6회, 奉養・孝養・養親 등이 각 1회씩 사용되고 있다. 이들 소재들은 모두 父母를 孝行으로 섬긴다는 용어들인데, 시조와 가사에 사용된 용례를 보기로 한다.

父母님 자시논房은 만져보아 넘게깃고
一日 三時을 孝養를 못홀진들
父生코 母育호恩惠야 니를출이 이시라
〈校本歷代時調全書 1290〉

父母 김기기를 至誠으로 섬기리라
鶉鳴에 監漱하고 懷寒을 못조오며
날마다 侍側奉養을 沒身不衰 하고리라
〈同書 1293〉

前者는 作者未詳의 시조이고, 後者는 朴仁老의 五倫歌(父子有親)로, 두 首 모두 그 주제는 思親孝道인데, 孝養과 奉養을 소재로 하고 있다. 이들 소재를 가사에서도 볼 수 있다.

친부모나 식부모나 부모난 일반니라
부디부디 효양으로 섬기다ㄱ 너오나라 기별커든
춘풍습월 호시절의 도리힘화 웃는다시
우슴으로 도라웃나¹⁴⁾

〈思親歌〉

正月이라 十五日에 玩月하는 少年들아
凶豊도 보리니와 父母奉養 생각세라
身體髮膚 四大節은 부모님께 타났스니

13) 「退溪先生文集」卷之一, 歲季得鄉書書懷, 三・四張.

14) 「閨房歌辭(Ⅰ)」〈思親歌〉p. 17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10, 20.

태산가치 노픈덕과 하해같이 기픈정을
어이하야 이즈리오¹⁵⁾

〈思親歌〉

退溪가 쓴 墓碣銘에도 奉養과 孝義라는 용어가 보인다.

公資高學遂識見超詣 起居動作自中規度 其奉養必誠謁參必謹 喪致哀祭致敬 篤於人倫推心
周急 友愛諸弟權欣誨諭 窮晝夜不厭色和言溫 胸襟灑然人樂親附¹⁶⁾

篤於孝義 其居二親之喪 哀毀過禮躬執爨不懈 及思齋沒又爲之心喪三年 窮無室屋假寓於京
城西門內 妻妾辟糲以自給 往往瓶粟不繼 未嘗以是爲戚也¹⁷⁾

비째로, 同氣 간을 뜻하는 소재를 보면 兄弟 6회, 同生 2회, 兄·慈兄·아의(弟)
등이 각 1회씩 쓰이고 있는데, 같은 부모로 부터 먼저 태어난 이를 兄이라 하고 후
에 태어난 이를 동생이라 한다.

兄弟: ① 先生者曰兄 後生者曰弟 後人專稱弟曰兄弟

② 統稱戚屬曰兄弟〔儀禮·士冠禮〕兄弟畢沅玄(注)兄弟 主人親戚也……兄弟 昏
姻嫁娶也¹⁸⁾

이들 소재를 우리 시가에서 찾아 보기로 하겠다.

周世鵬의 시조인 五倫歌의 兄友弟恭 조를 보면

兄님 자신저줄 내조처 머궁이다
어와 더아스야 어마님 너스랑이야
兄弟웃 不和하면 개도티라 헝리타

〈校本歷代時調全書 3239〉

와 같이 兄·아스·兄弟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兄弟는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자란 만큼 서로 不和하면 개·돼지와 같으니 부디 兄弟 간 友愛
하고 和睦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또, 白受繪의 가사인 在日本長歌에도 兄弟라는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乾坤을 俯仰하고 古事를 思量하니
父母의 恩德과 兄弟의 友愛를
못다감혼 殘軀로다
枕上의 夢꾸어 故國의 도라오니
宮室이 如前하고 松菊이 荒蕪로다

15) 李相實 外: 「歌辭文學全集」(思親歌) p. 452. 精研社, 1961, 7, 10.

16)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七, 有明朝鮮國朝奉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 兼經筵侍讀官春秋館
記注官 李公墓碣銘 并序, 三十六·七張.

17)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七, 秋嚮居士鄭君墓碣銘 并序, 七·八張.

18) 「辭源」(正續編 合訂本) 子集, p. 148.

退溪의 孝友歌 研究

内房歌辭인 思弟歌에도 兄弟・兄・아우 등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하고 兄弟인가 虛度光陰 하겠구나
 二女두고 恨歎마라 딸은子息 아닐소나
 四女들 네兄이는 憂中에도 樂事로다
 奇異할사 우리아우 女子되기 아깝도다

이와 같이 兄弟 등의 소재가 孝友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에는 두루 사용되고 있는데, 退溪의 漢詩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 보기로 한다. 兄弟라는 소재의 사용을 「種松」에 「院竹何如作弟兄」이라는 곳 이외에는 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그의 書에는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 한 두 예만 보기로 하겠다.

兄弟四人友愛甚至 其輕財急義也 兄弟友朋苟可與則與之奴婢若輟杯水 貧不能嫁娶者挾助之不顧已貧¹⁹⁾

公德性寬厚 器量恢弘 友于兄弟 其處家熙熙然 子弟婢僕有過 未嘗形于嗔恚 仲兄濬早卒 公取猶不宰撫視教訓 至于成立其與人居薰然可親²⁰⁾

다섯째로, 人名을 소재로 한 것은 오직 大舜과 曾參 두 사람 뿐이다.

먼저, 이 두 사람의 약력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帝舜有虞氏 姚姓 或曰名重華 瞽瞍之子 顓頊六世孫也 父惑於後妻 愛小子象 常欲殺舜 舜盡孝悌之道 烝烝乂 不格姦……堯崩 舜避位河南 天下朝覲 訟獄謳歌者 不歸堯之子而歸舜 遂即位 以土德王 命九官 咨十二牧²¹⁾

曾參 點子 字子輿 孔子弟子 事親至孝 嘗耘瓜誤斲其根 點怒 援杖繫之 幾死 有頃蘇 鼓琴而歌 孔子聞之 告門人曰 參來勿內也 小杖則受 大杖則走 今參陷父不義 安得爲孝乎 參聞之 遂造孔子謝過焉 參性質魯 日三省其身 悟一貫之旨 述大學 作孝經 以其學傳子思 子思以傳孟子 後世稱爲宗聖²²⁾

舜帝와 曾參은 元의 郭居業이 選定한 중국 24孝 중의 사람들이다.

忠孝를 중시하는 조선조 유교사회에서는 24孝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은 대단한 것이어서 우리 시가에도 이들에 대하여 追慕讚頌한 것이 많이 있다.

아비는 나으시고 어미는 치웁시니
 昊天 罔極이라 갑훈길이 어려우니
 大舜의 終身誠孝도 못다한가 흥노라

〈校本歷代時調全書 1823〉

19)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七, 聽松成先生墓碣銘 并序, 三十二張.

20)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七, 嘉善大夫禮曹參判兼同知春秋館事 五衛都總府副總管李公墓誌銘 并序, 二十二張.

21) 「詳密註釋史略諺解」卷之一, 滙東書館, 1916, 3, 23.

22) 「中國人名大辭典」p.1164.

日中 三足鳥ㅣ야 가지말고 너말드려
 너되논 反哺鳥ㅣ라 鳥中之 曾參이로다
 北堂에 鶴髮雙親을 더되롭게 하여라

〈校本歷代時調全書 2449〉

前者는 朴仁老의 五倫歌(父子有親)로, 大舜의 終身誠孝를 소재로 한 綱常五倫의 시조이고, 後者는 許琨의 시조로, 까마귀가 孝鳥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大孝인 曾參을 소재로 설명하고 있다.

李珣의 가사인 自警別曲에도 大舜과 曾參을 소재로 하여 至誠으로 奉親할 것을 노래한 것이 있다.

爲先第一 몬저홀닐 至誠으로 奉親하시
 大舜으로 法乙삼고 曾子로 스승하여
 養口體로 하여니와 心志乙 順히하시
 痛則致憂 不離側은 子息道理 例事로다
 昏定晨省 不忘後의 日用三牲 虛事로다
 人間孝子 되올일이 誠之一字 關重하다

退溪의 漢詩에도 이들을 소재로 한 것이 있다.

大舜親陶樂且安 淵明躬稼亦歡顏
 聖賢心事吾何得 白首歸來試考槃²³⁾

曾氏稱顏實若虛 屏山引發晦翁初
 暮年窺得巖棲意 博約淵水恐自疎²⁴⁾

여섯째로, 人名이 소재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中國 24孝 중의 仲由(子路)・王祥・孟宗 등에 관한 고사를 소재로 한 것이 있으니, 百里負米・겨울날(冬日)・竹筍・어름(水)・굴(穴)・鯉魚 등이 그것이다.

먼저, 仲由・孟宗・王祥의 약력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仲由 字子路 一字季路 孔子弟子 性好勇 喜聞過 事親孝 嘗爲親百里負米 有政事才 初仕魯 後仕衛 爲孔悝邑宰²⁵⁾

孟宗 字恭武 後以避孫皓字 改名仁 少從南陽李膺學 其母作厚褥大被 人間故 母曰 小兒無德致客 客多貧 故爲廣被 庶可氣味相接矣 母嗜筍 冬時筍尚未生 宗入林哀歎 筍忽迸出 仕吳爲鹽池司馬²⁶⁾

王祥 字休徵 事繼母篤孝 母欲生魚 天寒水凍 祥解衣將剖冰求之 水解得雙鯉 徐州刺史呂虔辟爲別駕²⁷⁾

23) 「退溪先生文集」卷之三, 陶山書堂, 十一張.

24) 「退溪先生文集」卷之三, 巖栖軒, 十一張.

25) 「中國人名大辭典」p. 221.

26) 「中國人名大辭典」p. 552.

27) 「中國人名大辭典」p. 123.

退溪의 孝友歌 研究

세 분의 행적을 보면 모두 지극한 孝誠으로 父母를 奉養하고 있다. 仲由는 아버지를 효양하기 위하여 百里에서 쌀을 지고 왔고, 孟宗은 겨울철에 竹筍을 얻어 어머니를 효양하였고, 王祥은 겨울철 얼음 구멍에서 잉어를 얻어 어머니를 효양하였다.

이들 또한 舜帝와 曾參에 못지않게 追仰되어 이들에 대한 고사가 우리 시가에 소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朴仁老의 시조에 보면

王祥의	鯉魚잡고	孟宗의	竹筍먹거
김년덜리	회도록	老萊子의	오솔입고
一生애	養志誠孝를	曾子갓치	하리이다

〈校本歷代時調全書 2139〉

라고 하여 鯉魚와 竹筍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仲由(子路)의 百里負米를 소재로 한 것은 없고, 오직 金壽長의 시조에 子路를 孝子아닌 學子로서 다룬 것이 있다.

孝悌로	비를무워	忠信으로	뚝갈달아
顔淵	子路로	槽주워	세워두고
우리도	孔夫子되웁고	學海中에	놀이랴

〈同書 3314〉

그런데, 시조와는 달리 가사에서는 子路의 百里負米와 王祥의 寒水鯉魚와 孟宗의 雪上竹筍을 소재로 한 것이 있다.

貴賤으로	홀거시면	貧富로	議論홀가
郭巨가탄	至窮人은	萬古孝子	아니딘가
石崇가탄	大富者도	奉親한단	닐흠업다
夫子門人	仲子路는	百里負米	하다하니
大聖人의	弟子되어	耳聞目睹	聖訓이라
듯고도	알거니와	보와도	可知로다……
感天至誠	王休徵은	닐흠잇는	孝子로다
어름숙의	鯉魚뛰고	나난치도	房의든다

〈自警別曲〉

十一月	冬至日에	萬物이	微生하니
一陽이	初動이라		
王祥의	寒水鯉魚	지성이	감천이오
孟宗의	雪上竹筍	신명의	도움이랴
言念及事	생각하니	통곡망극	새로워라
슬프도다	우리부모	冬至일을	모르시나

〈思親歌〉

이들 소재들 중 退溪의 漢詩에는 鯉魚만이 사용되고 있다.

故人在南溟 尺素傳鯉魚
緘封明月珠 贈我無所需
慰我如病鶴 一言意太足
我今百無用 纏此杯蛇惑
聖恩極天涵 臣質垂蒲彫
爲農宣城野 呻吟晝連宵
安得忽變化 培風負大翼
見君十洲中 群仙導儀飾
閨苑摘蟠桃 扶桑看出日
至道揖松喬 餘事追甫白²⁸⁾

일곱째로, 孝友에 관한 소재들인 友愛(2)・孝友・不孝・氣血・몸 등이 우리 시가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兄弟 내실적의 同氣로 삼겨시니
骨肉 至親이 兄弟又치 重홀던가
一生에 友愛之情을 호뭇긔치 흥리라
〈校本歷代時調全書 3245〉

許篈이 일운말슴 孝友盡誠호리 當代에너뿐이라
舜象 此變이 自古로 훌러오니
어즈버 未至遭變이아 베오귀오 달으랴
〈同書 3231〉

三千 罪惡中에 不孝에 더니업다
夫子의 이말슴 萬古에 大法삼아
아모려 下愚不移도 밋쳐알게 흥려토라
〈同書 1490〉

한氣血 노나나서 兄弟男妹 되얏시니
저몸의 疾痛飢寒 니當허나 다름쇼냐
아마도 同生의저혈닐을 니가몬져 헐리로다
〈同書 3156〉

위의 4편의 시조 중에서 첫째 시조는 朴仁老의 五倫歌(兄弟有愛)로 友愛와 몸이, 둘째 것은 姜復中의 시조로 孝友가, 세째 시조는 朴仁老의 五倫歌(父子有親)로 不孝가, 끝의 시조는 趙楨의 訓民歌로 氣血・同生・몸 등이 소재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들 소재가 시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退溪의 가사인 孝友歌에서와 같은 뜻으로 思親孝道(奉養)와 兄友弟恭하기를 가르치는데 쓰이고 있음을 본다.

또, 이들 소재는 가사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李基慶의 尋眞曲에 友愛・同生・孝友・不孝・몸 등이 소재로 사용된 것이 보인다.

28) 「退溪先生文集」卷之一, 士遂寄詩次韻, 二十七・八張,

退溪의 孝友歌 研究

부모님 입사울것 님뎡의 엇지걸나……
 동성은 무슴일로 友愛도 至重하다……
 남이서 不孝탄들 제父母 여원후의
 어린동성 화목하니 아마도 군조로다
 孝友로 버더가서 친척을 돈목하니
 아저벗님 존경하고 四六寸이 다경하다

〈尋眞曲〉

退溪의 「聽松成先生墓碣銘 并序」와 「靜庵趙先生行狀」에도 友愛와 孝友가 사용된 것이 보인다.

兄弟四人友愛甚至 其輕財急義也 兄弟友朋苟可與則與之奴婢若輟杯水 貧不能嫁娶者 掇助之不顧已貧²⁹⁾

孝友之行出於天性 日拜家廟風雨不廢 奉養承順靡不曲盡 治家以正內外截然 而恩信行焉 以清節自砥勵 自奉如寒士³⁰⁾

여덟째, 禽獸를 소재로 한 것을 보면 孝友歌에는 금수·기러기·소(牛)·馬·닭(鷄)·까마귀·鳥中 등이 있다.

이들 중 까마귀는 外形이 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凶鳥라고 해서 그 울음 소리를 듣거나 보기를 꺼리는데, 실상은 새끼가 커서 먹이를 구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어미를 反哺하기 때문에 예부터 孝鳥 또는 慈鳥라고 해서 孝子로 이름 높은 曾子에 비유하고 있다.

鳥 鳥名〔小爾雅〕純黑而反哺者謂之鳥³¹⁾

시벽서리 지논들에 외기러기 우리엘제
 반가온 님의消息 힘혀올가 브랏머니
 다만지 蒼茫한구름밧기 빈소티만 들니더라

〈校本歷代時調全書 1515〉

平生애 願하니 다몬忠孝 묻이로다
 이두일 알면 禽獸나 다라리아
 모옴애 ㅎ고져 ㅎ야 十載遑遑 ㅎ노라

〈同書 1532〉

모을 사름들하 울혼일 ㅎ자스라
 사름이 되어나서 울티곳 못ㅎ면
 모쇼를 갓갓잘쉬워 밧머기나 다르랴

〈同書 953〉

日中 金가마귀 가지말고 내말들어

29)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七, 聽松成先生墓碣銘 并序, 三十二張.

30) 「退溪先生文集」卷之四十八, 靜庵趙先生行狀, 三十三張.

31) 「辭源」(正續編 合訂本) 已集, p. 104.

너는 反哺鳥라 鳥中の 會參이니

오늘은 날을위하야 長在中天 하얏고자

〈校本歷代時調全書 2448〉

4편 중에서 처음 시조는 작자미상의 시조로 기러기를, 둘째 시조는 權好文의 閑居十八曲으로 금수를, 셋째 시조는 鄭澈의 訓民歌 중 鄉間有禮로 말(馬)과 소(牛)를, 끝의 시조는 盧禎의 母夫人壽宴歌로 까마귀·反哺鳥·鳥中 등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

가사에도 이들이 소재로 쓰이고 있는데, 李基慶의 尋眞曲에는 금수·기러기·소 등이, 李珣의 自警別曲에는 닭·까마귀 등이 소재로 쓰이고 있다.

그중의 慈愛情은 禽獸와 혼가지라
 손갓치 무경호되 저속기 혈적이고
 범갓치 모진증성 삭기둔골 두남두녀
 알로까나 티로노나 성성함도 天理로다……
 기러기 나는거동 일조로 늘어서니
 兄弟行이 저러호가 장유지서 초렷는가

〈尋眞曲〉

이런故로 그집안의 기와돌이 感化한다……
 反哺호난 저가마귀 거문치 너아니냐
 世上스롭 드러보소 가마기도 反哺호니
 瞻鳥愛知 反哺호니 可以人而 不如鳥아
 無窮하다 人子道理 어이다 記錄호리

〈自警別曲〉

退溪의 詩와 書에도 이들 소재들이 사용되고 있기에 보기로 한다.

嘗曰學者須洗去塵雜 使心地清明然後 庶可得入道蹊徑 而免趨於小人禽獸之城矣³²⁾

秋懷慘慄蕙蘭腓 水落天空鴈欲飛
 不係窮通憂與樂 何知今古是兼非
 天淵臺廻閒吟坐 祚櫟遷長帶醉歸
 但使淵明終老地 衣沾夕露願無違³³⁾

飯得牛肥不外求 何心長夜自歌謳
 起來又不逢堯舜 功業終歸假事周³⁴⁾

雞鳴而起各孳孳 觸手無非善利幾
 莫只攻人忘自責 斯須不戒少人歸³⁵⁾
 兇雲虐雪陰極慘 風勢如奔百萬兵

32)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七, 有明朝鮮國朝奉大夫行弘文館校理知製敎 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李公墓碣銘 并序, 三十七張.

33)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秋日游陶山夕歸, 一張.

34)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扣角飯牛, 五十張.

35) 「退溪先生文集」 卷之三, 東齋感事十絕, 二張.

凍及日中鳥可畏 溝中未暇念民生³⁶⁾

이상에서 孝友歌에 사용된 소재 중에서 주로 孝友와 관련이 깊은 소재를 가지고 이들이 우리 시가(時調와 歌辭)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고, 또 이들이 退溪의 漢詩·文에 나타난 것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이 소재들이 시조에서는 주로 敎誨警戒와 思親孝道에서, 가사에서는 道德敎訓的인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4. 形 式

1. 音步律(詩脚)

音步는 詩脚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詩에 있어서 리듬을 규칙대로 쓸 때 대체로 하나의 強音節을 중심으로 그것에 어울리는 弱音節을 합하여 리듬의 한 단위를 이룬다 이 리듬의 최소 단위를 詩脚 또는 音步라고 한다.³⁷⁾

筆者는 한국 시가의 音步에 대하여 拙著「歌辭文學 研究」³⁸⁾와 拙稿「退溪의 相杵歌 研究」³⁹⁾에서 살펴본 바 있다.

한국 詩歌의 音步律(韻律)에 대하여 연구한 분 중에서 대표적인 이는 鄭炳昱 교수이다 鄭교수는 우리 詩歌의 詩行(Verse)은 3步格과 4步格의 2種類로, 3音步로 된 시가의 대부분이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고 전해지는 歌詞와 또는 고려시대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歌詞가 거의 이 3音步로 되었는데, 이는 漢文化 수입 이후 偶數 개념이 모든 文學의 修辭上의 기교를 지배하게 되어 이 땅의 知識人·文化人의 美意識은 차츰 전통적인 奇數系의 3音步 운률에서 偶數系의 4步格 운률로 옮겨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⁴⁰⁾ 그런데, 時調와 歌辭가 漢詩·文의 영향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니 만큼 漢文化가 이 땅에 들어와 中國詩의 偶數 개념으로 인해서 민족 고유의 3音步가 4音步로 바뀌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기에 筆者는 한국 시가의 韻律의 구조는 옛부터 3音步와 4音步가 함께 사용되었다고 보는 바이지, 결코 漢詩·文의 영향에서 민족 고유의 3音步가 4音步로 바뀌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上古 가요 중에서 迎神歌와 公無渡河歌를, 고려가요 중에서는 翰林別曲·雙花店·靑山別曲·滿殿春別詞·處容歌를, 民謠와 歌辭(兩班歌辭·平民歌辭·內房歌辭) 등의 音步에 대하여 살펴본 후에 얻어진 결론이다.

그런데, 歌辭의 音步律이 4音步이지만 이는 劃一的이 아니다. 왜냐하면 간혹 3音

36) 「退溪先生文集」卷之一, 十一日曉地震三首, 四十六張.

37) 文德守: 「世界文藝大辭典」上卷, p. 1177.

38) 徐元燮: 「歌辭文學 研究」 pp. 163~167, 螢雪出版社, 1978, 8, 20.

39) 「韓國의 哲學」8號, pp. 40~44, 慶北大退溪研究所, 1979, 12, 24.

40) 鄭炳昱: 「國文學散葉」p. 134, 新丘文化社, 1959.

步와 5音步와 6音步로 된 것도 있음을 보았다.

한국 시가의 音步律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설명해두기로 하고, 이제 孝友歌에 사용된 音步律은 어떤지 보기로 하겠다.

退溪의 孝友歌는 전 94節(行) 188句 376音步 1,313字로 되어 있는데, 각 節은 정연하게 4音步로 되어 있다.

11節까지 보기로 한다.

너희를／길러내여／므슴일 ／헝라헝리
 인간의／홀일이야／수없이 ／만타마논
 다른일／다박리고／효의나 ／헝여스라
 효우똥／뭇헝오면／금슈의 ／갓가오리
 너희똥／헝라헝면／주세히 ／이르리라
 아버지／주식의계／은정을 ／비케되면
 턴더와／갓튼지라／갑플주리／ㄴ이업다
 열살을／비실어서／세히곰 ／품의품고
 오즘똥／똥내면서／안고지고／키우실제
 어루며／우이시며／구슬갓치／더기시샤
 을 면／똥곰플가／치오면 ／버스논가

위의 작품 중／은 音步의 표시요, ／는 句의 표시이다.

인용한 11節(行)이 모두 각 節이 2개의 句와 4개의 音步로 되어 있음을 본다. 인용하지 아니한 작품에서도 각 節이 이와 같이 2개의 句와 4개의 音步로 되어 있다.

여기에 退溪와 松江과 蘆溪의 전 가사에 사용된 音步는 어떠한지 보기로 하자.

먼저, 退溪의 가사를 보기로 한다.

- 1) 琴譜歌 65節 130句 260音步 906字
- 2) 勸義指路辭 144節 292句 584音步 2,053字
- 3) 樂貧歌 48節 96句 192音步 651字
- 4) 相杵歌 29節 58句 116音步 393字
- 5) 孝友歌 94節 188句 376音步 1,313字

退溪의 5편 가사에 사용된 節(行)・句・音步・總字數는 380節(行) 764句 1,528音步 5,316字이다.

歌辭는 1節(行)이 2개의 句와 4개의 音步로 구성된 것이 가장 옳다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退溪의 가사는 380節(行)이니 句는 760句이고, 音步는 1,520音步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764句에 1,528音步로 되어 있어, 4개의 句와 8개의 音步가 더 사용되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4개의 句와 8개의 音步가 더 사용된 것은 退溪의 전 가사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勸義指路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1節이 6音步로 된 작품을 보기로 한다.

- 1) 孔孟의 /말을하코//孔孟의/法을하면//孔孟이 /되려니와
- 2) 盜跖의 /옷슬입고//盜跖의/말을하면//이아니 /盜跖인가
- 3) 日月갓치/달려시니//一時도/어렵거든//제뉘라셔/잡혀질고
- 4) 明道께 /길홀물어//가다가/저물거던//晦菴이 /들어자고

다음, 松江의 가사를 보기로 하자.

- 1) 關東別曲 146節 293句 586音步 2,001字
- 2) 思美人曲 63節 126句 252音步 881字
- 3) 續美人曲 48節 96句 192音步 670字
- 4) 星山別曲 84節 169句 338音步 1,164字

松江의 4편 가사에 사용된 節(行)·句·音步·總字數는 341節 684句 1,368音步 4,716字인데, 節數가 341節이니 句는 682句이고, 音步는 1,364音步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684句에 1,368音步로 되어 있어, 2개의 句와 4개의 音步가 더 사용되고 있다.

이는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에서 1節이 6音步로 된 것이 각 1회씩 나타나고 있으니, 작품을 보기로 한다.

- | | |
|--------------------------------|--------|
| 1) 玲瓏 /碧溪와 /數聲 /啼鳥는//離別을/怨하느듯 | 〈關東別曲〉 |
| 2) 너씨에/나온鶴이//제기슬/버리고//半空의/소소울듯 | 〈星山別曲〉 |

끝으로, 蘆溪의 가사를 보기로 하겠다.

- 1) 太平詞 72節 144句 290音步 975字
- 2) 莎堤曲 88節 179句 359音步 1,228字
- 3) 陋巷詞 77節 157句 314音步 1,086字
- 4) 船上數 68節 144句 288音步 987字
- 5) 獨樂堂 123節 253句 506音步 1,687字
- 6) 嶺南歌 56節 114句 228音步 771字
- 7) 蘆溪歌 96節 206句 413音步 1,387字
- 8) 小有亭歌 116節 239句 479音步 1,626字

蘆溪의 8편 가사에 사용된 節(行)·句·音步·總字數는 696節 1,436句 2,877音步 9,747字인데, 節數가 696節이니 句는 1,392句이고, 音步는 2,784音步여야 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1,436句에 2,877音步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8篇의 蘆溪歌辭 중 1節이 6音步로 된 것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莎堤曲과 陋巷詞에서 3개, 船上數에서 8개, 獨樂堂에서 7개, 嶺南歌에서 2개, 蘆溪歌에서 14개, 小有亭歌에서 8개, 모두 45개가 있다.

작품에서 보기로 한다.

- 1) 崖芝／汀蘭은／清香이／郁都하야／遠近에／이어잇고 <莎堤曲>
- 2) 淸江의／발을씻고／風乎／江畔하야／興을타고／도라오니 <莎堤曲>
- 3) 노루락／나지락／峰峰／谷谷이／面面에／버터쳐든 <莎堤曲>
- 4) 莘野／耕叟와／壠上／耕翁을／賤타하리／업것마는 <陋巷詞>
- 5) 親切호라／너긴집의／달업슨／黃昏의／허위허위／다라가서 <陋巷詞>
- 6) 현면덕／수기스고／측업슨／집신에／설피설피／물너오니 <陋巷詞>
- 7) 진실로／비아니면／風波／萬里밖과／어니四夷／엇불넌고 <船上歌>
- 8) 뉘말을／미더듯고／童男／童女를／그디도록／드려다가 <船上歌>
- 9) 扁舟곳／아니타면／天淸／海濶하다／어니興이／결로나며 <船上歌>
- 10) 浮萍호／漁父生涯를／一葉舟／아니면／어디부쳐／돈힐논고 <船上歌>
- 11) 일언닐／보전딘／비삼진／制度야／至妙호넋／하다마는 <船上歌>
- 12) 엇디호／우리물은／누는듯호／板屋船을／晝夜의／빋기투고 <船上歌>
- 13) 國運이／不幸하야／海醜／兇謀에／萬古羞을／안고이서 <船上歌>
- 14) 하물며／이몸은／手足이／마자잇고／命脈이／이어시니 <船上歌>
- 15) 紫玉山／名勝地에／獨樂堂이／蕭麗홀을／들런디／오래로되 <獨樂堂>
- 16) 閑中／靜裏에／潛思／自得하야／혼자즐겨／하시넋다 <獨樂堂>
- 17) 觀魚臺／느러오니／얕은넋호／盤石의／杖履痕이／보이논닷 <獨樂堂>
- 18) 百尺／澄潭에／天光／雲影이／얼희여／좀겨시니 <獨樂堂>
- 19) 桃花洞／느린물리／不舍／晝夜하야／落花조차／흘러오니 <獨樂堂>
- 20) 이터호／形勝을／范希文의／文筆인들／다서넋기／쉬울넋가 <獨樂堂>
- 21) 듯느니／보느니／深山／窮谷엔들／뉘아니／悲感하리 <獨樂堂>
- 22) 稷契皇陶／몸이되야／致君／堯舜을／외웁고야／말라너겨 <嶺南歌>
- 23) 相國／風度を／司馬溫公／畫像갓치／無限無限／그려니야 <嶺南歌>
- 24) 竹杖／芒鞋로／蘆溪／집흔골이／헛혀마침／차조오니 <蘆溪歌>
- 25) 古往／今來에／幽人／處士들이／만히도／잇것마는 <蘆溪歌>
- 26) 玄武／朱雀과／左右／龍虎도／그린듯시／마갓고야 <蘆溪歌>
- 27) 靑山／流水와／明月／淸風도／말업시／절로절로 <蘆溪歌>
- 28) 無盡호／江山과／許多호／閑田은／分給子孫／하려이와 <蘆溪歌>
- 29) 조어린／이몸은／仁者도／아니오／智者도／아니로되 <蘆溪歌>
- 30) 괴기도／나치이거／놀닐줄／모르거는／차마엇디／나글넌고 <蘆溪歌>
- 31) 하문득／驚怪하야／俯察／仰觀하니／上下天이／宛然하다 <蘆溪歌>
- 32) 一陣／東風에／괴엇진／漁笛이／놓히부러／보넋던고 <蘆溪歌>
- 33) 물가에／白鷗는／오논듯／가논듯／긋칠줄을／모르느다 <蘆溪歌>
- 34) 正值／花時를／虛度치／말나너겨／아희불너／하논말습 <蘆溪歌>
- 35) 살진／고사리／香氣호／當歸草를／猪脯鹿脯／相間하야 <蘆溪歌>
- 36) 鮪魚膾／初味에／訥魚生雉／서거구어／빋빋치／드리거든 <蘆溪歌>
- 37) 江湖에／물너신들／憂君／一念이야／어니刻애／이글넌고 <蘆溪歌>
- 38) 노루락／느즈락／峭壁／巖峰이／날위하야／버려논듯 <小有亭歌>
- 39) 古往／今來에／英雄／豪傑이／만히도／지내마는 <小有亭歌>
- 40) 仁者／樂山과／智者／樂水를／엇지넋은／말습인고 <小有亭歌>
- 41) 앉서락／뒤배락／五五／三三이／李杜詩를／섯거음고 <小有亭歌>

- | | |
|---------------------------------|--------|
| 42) 淸江의／바를벗고／訪花／隨柳하여／興을타고／도라오니 | 〈小有亭歌〉 |
| 43) 골넙페／닷틀노코／□土入집／그물을／결잔／진江의 | 〈小有亭歌〉 |
| 44) 蓮넙페／다문鯢과／질瓶의／취운수물／厭飯토록／머근後的 | 〈小有亭歌〉 |
| 45) 靑孤／葉上의／江風이／짐춌너러／歸帆을／비야논듯 | 〈小有亭歌〉 |

또, 蘆溪歌辭는 1節(行)이 3音步로 된 것이 있으니, 太平詞에 3 3 4조・4 3 4조, 莎堤曲에 3 2 4조, 獨樂堂・蘆溪歌・小有亭歌에 3 3 4조 등 6개가 있다.

- | | |
|------------------|--------|
| 1) 海不揚波／이젠가／너기로다 | 〈太平詞〉 |
| 2) 못노라／이날이／어디적고 | 〈太平詞〉 |
| 3) 흥물며／南山／노된국히 | 〈莎堤曲〉 |
| 4) 흥물며／孝悌를／본을삼고 | 〈獨樂堂〉 |
| 5) 흥물며／明時에／바린몸이 | 〈蘆溪歌〉 |
| 6) 흥물며／八公山／전너보니 | 〈小有亭歌〉 |

이상 세 분의 가사에 나타난 音步律을 가지고 볼 때 1節이 6音步로 된 것이 退溪歌辭는 4개, 松江歌辭는 2개가 더 사용되고 있을 뿐 대체로 1節(行)이 4개의 音步로 된 정연한 가사임에 비해서 蘆溪歌辭는 1節이 6音步로 된 것이 45개와 3音步로 된 것이 6개가 있어, 음보율을 가지고 形式을 말한다면 退溪와 松江의 가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退溪의 가사는 음보면에서 松江의 가사에 못지않은 훌륭한 가사라고 할 수 있다.

2. 音數律

歌辭 작품을 살필 때마다 그 形式—특히 音數律을 보기 마련이다.

本稿에서도 孝友歌의 音數律을 보기 위해서 일반적인 歌辭文學에 나타나는 音數律을 말해 둘 필요가 있겠다.

拙著「歌辭文學 研究」⁴¹⁾에서 논술한 바를 간략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歌辭에 사용된 主音數律과 結詞形式은 兩班(士大夫)歌辭와 平民歌辭・內房歌辭가 동일하지 않는다.

兩班歌辭에 사용된 主音數律은 3 4調이고 副音數律은 4 4調인데 비해서 平民歌辭와 內房歌辭에 사용된 主音數律은 4 4調이고 副音數律은 3 4調이다.

또, 가사의 결사형식에 있어서도 양반가사는 시조의 종강형식인 3 5 4 3과 일치하는 正型歌辭이고, 평민가사와 내방가사는 시조의 종강형식과 일치하지 않는 變型歌辭로, 그 음수율은 주음수율의 連疊인 4 4 4 4이다.

退溪의 신분계층이 兩班・士大夫이기에 그의 가사도 兩班歌辭에 속한다.

41) 徐元燮:「歌辭文學 研究」pp. 167~181.

그렇다면 양반가사가 지니는 音數律과 結詞形式이 退溪의 孝友歌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기로 한다.

孝友歌는 全 94節(行) 188句 376音步 총 1,313字로 되어 있는데, 그 음수들은 다음과 같다.

〈표 1〉

節	句	音步	字數	2·3調	2·4調	3·3調	3·4調	3·5調	4·3調	4·4調
94	188	376	1,313	11	8	3	134	1	2	29

〈표 1〉을 보면 本歌에서 사용되고 있는 音數律은 2 3調·2 4調·3 3調·3 4調·3 5調·4 3調·4 4調 등 7개인데, 이를 다시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 5字句 2 3調—11
- 6字句 { 2 4調—8
 3 3調—3
- 7字句 { 3 4調—134
 4 3調—2
- 8字句 { 3 5調—1
 4 4調—29

이를 보면 孝友歌는 188句로 구성된 중에서 3 4조가 134개가 되고 4 4조가 29개가 되어, 양반가사의 주음수율이 3 4조이고 부음수율이 4 4조라는 것에 부합되고 있다.

여기에서 退溪의 다른 歌辭에 사용된 음수율을 살펴보고 난 후 松江의 歌辭와 蘆溪의 歌辭에 사용된 음수율과 對比해 보기로 하겠다.

〈표 2〉

作品名	節數	句數	字數	2·3조	2·4조	3·2조	3·3조	3·4조	3·5조	3·6조	3·7조	4·3조	4·4조
琴譜歌	65	130	906	5	13		3	86	2			1	20
勸義指路辭	144	292	2,053	17	11		7	196		1		1	59
樂貧歌	48	96	651	14	3	1	3	59	2			1	13
相杵歌	29	58	393	12	3		1	28			1	1	12
孝友歌	94	188	1,313	11	8		3	134	1			2	29
計	380	764	5,316	59	38	1	17	503	5	1	1	6	133

〈표 2〉를 보면 琴譜歌·勸義指路辭·相杵歌·孝友歌 등은 7개의 음수율로, 樂貧歌는 이 보다도 1개가 더 많은 8개의 음수율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편의 가사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 음수율은 2 3조·2 4조·3 3조·3 4조·4 3조·4 4조 등 6개이고, 3 5조는 琴譜歌·樂貧歌·孝友歌에서, 3 2조는 樂貧歌에서, 3 6조는 勸義指路辭에서, 3 7조는 相杵歌에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5편의 가사에 사용된 음수율의 합계가 10회 이상인 것만을 보면 2 3조・2 4조・3 3조・3 4조・4 4조 등 5개이다.

退溪의 5편 가사가 모두 7・8개의 음수율로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10회 이상 사용된 음수율은 5개 뿐이다.

여기에서 잠깐 歌辭의 장르 규정을 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여 拙著인 「歌辭文學 研究」에서 논술 한 바를 보기로 한다.

歌辭는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 形式은 韻文이기에 詩歌로서의 要件을 갖추었다고 하겠으나 内容만은 그렇지가 않다. 곧 가사를 「歌辭」・「詩歌」・「隨筆」・「中世紀의 散文文學」・「教述文學」등등으로 장르를 규정하고 있어, 内容面에서 볼 때는 歌辭는 詩歌적인 것도 있고, 隨筆적인 것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歌辭의 내용이 비록 수필적인 要素가 있다고 해서 전체 歌辭를 수필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抒情的인 歌辭는 詩歌 장르에 넣고 隨筆的인 歌辭는 隨筆 장르에 넣을 수도 없다. 文學의 장르 규정을 지을 때는 그 작품의 내용에 의거하는 것보다 그 形式에 치중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 점에서 비취볼 때 비록 内容面에서 수필적인 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다 더 많은 抒情的인 歌辭가 있고, 또 形式面에서 모든 歌辭가 韻文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歌辭는 詩歌 장르에 속한다.⁴²⁾

그렇다면 가사는 詩歌이다. 詩歌라고 하면 정연한 형식미를 요구하기에 가사도 그 사용된 音數律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定型詩歌라는 입장에서 볼 때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退溪의 歌辭는 그 形式에 있어 꼭 우수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退溪의 가사들이 어느 정도 우수한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歌辭文學의 大家인 鄭澈과 朴仁老의 歌辭에 대한 音數律을 보기로 한다.

〈표 3〉

作 品 名	節 數	句 數	字 數	2・2조	2・3조	2・4조	3・2조	3・3조
關東別曲	146	293	2,001		20	24	1	22
思美人曲	63	126	881	1	3	10		9
續美人曲	48	96	670		3	12	1	14
星山別曲	84	169	1,164		11	13		7
計	341	684	4,716	1	37	59	2	52

42) 徐元變: 「歌辭文學 研究」 pp. 39~41.

作 品 名	3·4조	3·5조	3·6조	3·7조	4·3조	4·4조	5·2조	5·3조
關 東 別 曲	183	1			4	37	1	
思 美 人 曲	77			1	1	23		1
續 美 人 曲	33		1		2	30		
星 山 別 曲	115			1	2	20		
計	408	1	1	2	9	110	1	1

43)

〈표 3〉을 보면 關東別曲과 思美人曲은 9개의 음수물로, 續美人曲은 8개의 음수물로, 星山別曲은 7개의 음수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편 가사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 음수물은 2 3조·2 4조·3 3조·3 4조·4 3조·4 4조 등 6개이고, 3 2조는 關東別曲과 續美人曲에서, 3 7조는 思美人曲과 星山別曲에서, 2 2조는 思美人曲에서, 3 5조는 關東別曲에서, 3 6조는 續美人曲에서, 5 2조는 關東別曲에서, 5 3조는 思美人曲에서만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표 4〉

作品名	節 數	句 數	字 數	2·2조	2·3조	2·4조	2·5조	3·2조	3·3조	3·4조	3·5조
太平詞	72	144	975	1	29	15	1		4	52	1
莎堤曲	88	179	1,228		16	19			25	68	1
陋巷詞	77	157	1,086		17	16			15	54	1
船上歌	68	144	987		17	16	1		12	52	1
獨樂堂	123	253	1,687	3	49	31			11	92	1
嶺南歌	56	114	771	2	21	15			5	30	1
蘆溪歌	96	206	1,387	1	41	17			18	62	
小有亭歌	116	239	1,626		37	16	1	1	24	90	
計	696	1,436	9,747	7	227	145	3	1	114	500	6

作品名	3·6조	3·7조	3·9조	4·3조	4·4조	4·5조	3·2·4조	3·3·4조	4·3·4조
太平詞	1			1	37			1	1
莎堤曲			1	5	43		1		
陋巷詞				5	47	2			
船上歌				6	38	1			
獨樂堂				4	61			1	

43) 拙著「歌辭文學 研究」(p.168)에서의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의 音數律 統計는 朴晟義님의 「松江·蘆溪·孤山の 詩歌文學」의 것을 인용하였던 바 잘못된 곳이 다소 있기에 本稿에서는 星州本의 關東別曲과 星山別曲을 가지고 새로 음수물 통계를 내어 보았다.

嶺南歌		1		2	37				
蘆溪歌	1			5	60			1	
小有亭歌	1			5	62	1		1	
計	3	1	1	33	385	4	1	4	1

44

〈표 4〉를 보면 太平詞는 12개의 음수들로, 小有亭歌는 11개의 음수들로, 莎堤曲・船上歌・獨樂堂・嶺南歌・蘆溪歌는 9개의 음수들로, 陋巷詞는 8개의 음수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8편 가사에 모두 사용되고 있는 음수들은 2 3조・2 4조・3 3조・3 4조・4 3조・4 4조의 6개이고, 3 5조는 太平詞・莎堤曲・陋巷詞・船上歌・獨樂堂・嶺南歌에서, 2 2조는 太平詞・獨樂堂・嶺南歌・蘆溪歌에서, 2 5조는 太平詞・船上歌・小有亭歌에서, 3 2조는 小有亭歌에서, 3 6조는 太平詞・蘆溪歌・小有亭歌에서, 4 5조는 陋巷詞・船上歌・小有亭歌에서, 3 7조는 嶺南歌에서, 3 9조는 莎堤曲에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한가지 특기할 것은 歌辭는 1節(行)이 2개의 句로 되어 있고, 1개의 句에는 2개의 音步(詩脚)로 되어 있는데, 蘆溪歌辭 8편 중에는 1개의 句에 3개의 音步로 된 것이 있다. 즉 1節(行)이 2개의 句와 5개의 음보로 되어 있다.

이를 보면 太平詞는 3 3 4조와 4 3 4조가, 莎堤曲에는 3 2 4조가, 獨樂堂・蘆溪歌・小有亭歌에는 3 3 4조가 각 1회씩 사용되고 있다.

이에서 다시 退溪・松江・蘆溪의 가사에 사용된 음수들을 대비해 보기로 한다.

〈표 5〉

作 品	節 數	句 數	字 數	2・2조	2・3조	2・4조	2・5조	3・2조	3・3조	3・4조	3・5조
退溪歌辭	380	764	5,316		59	38		1	17	503	5
松江歌辭	341	684	4,716	1	37	59		2	52	408	1
蘆溪歌辭	696	1,436	9,747	7	227	145	3	1	114	500	6
作 品	3・6조	3・7조	3・9조	4・3조	4・4조	4・5조	5・2조	5・3조	3・2・4조	3・3・4조	4・3・4조
退溪歌辭	1	1		6	133						
松江歌辭	1	2		9	110		1	1			
蘆溪歌辭	3	1	1	33	385	4			1	4	1

〈표 5〉에 의하면 退溪의 5편 가사에 사용된 음수들은 10개이고, 松江의 4편 가사에 사용된 음수들은 13개이고, 蘆溪의 8편 가사에 사용된 음수들은 17개이다.

歌辭가 詩歌일진대 그 음수들이 10개에서 17개로 구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形式美에

44) 前註와 같은 이유에서 「蘆溪先生文集」의 歌辭 7篇과 새 資料인 小有亭歌(金文基 교수 소장)를 가지고 새로 音數律 統計를 내어 보았다.

있어 좀 散漫함을 나타낸다고 하겠으나 세 분 가사에 모두 사용된 음수율은 2 3조 · 2 4조 · 3 2조 · 3 3조 · 3 4조 · 3 5조 · 3 6조 · 3 7조 · 4 3조 · 4 4조 등 10개인데, 이 중에서 10회 이상 사용된 음수율만 보면 退溪와 松江의 가사에서는 2 3조 · 2 4조 · 3 3조 · 3 4조 · 4 4조의 5개이고, 蘆溪의 가사는 이에 4 3조를 보태어 6개로 나타나고 있다.

또, 세 분 가사의 음수율을 보면 兩班 · 士大夫 가사의 主音數律이 3 4조이고, 副音數律이 4 4조라는 원칙에도 부합하고 있다. 또 이 밖에 음수율의 사용된 빈도수가 많은 것을 보면 退溪와 蘆溪의 가사에서는 2 3조 · 2 4조 · 3 3조의 順으로 되어 있고 松江의 가사에서는 2 4조 · 3 3조 · 2 3조의 順으로 되어 있다.

이상 세 분의 가사에 나타난 음수율을 가지고 볼 때 退溪는 松江과 蘆溪보다도 더 少數의 음수율을 사용하여 가사를 지었음을 알 수 있다.

定型詩歌는 그 形式美의 整然性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이 점에서 退溪는 松江과 蘆溪보다도 더 少數의 음수율을 가지고 훨씬 밀도있게 가사의 형식을 구성하고 있어 退溪의 가사는 音數律 面에서도 높이 평가할만 하다.

3. 結詞形式

가사의 결사형식은 모든 가사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곧, 時調의 종장형식과 일치하는 結詞形式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한 것도 있다. 前者를 正型歌辭라 하고 後者를 變型歌辭라고 하는데, 대체로 兩班歌辭는 正型歌辭에 해당하고 平民歌辭와 內房歌辭는 變型歌辭에 해당한다.

孝友歌의 結詞形式을 보기로 한다.

아마도 만단슈회를 못다일너 흥노라
3 5 4 3

本歌의 결사형식은 3 5 4 3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시조의 종장형식의 3 5 4 3과 일치하고 있어, 이 孝友歌도 正型歌辭임을 알 수 있다.

이에서 退溪 · 松江 · 蘆溪의 가사에 사용된 結詞形式을 보기로 한다.

먼저, 退溪의 5편 歌辭를 보기로 한다.

- | | |
|---|---------|
| 1) <u>엇지타</u> <u>大聖遺言을</u> <u>誤傳할줄</u> <u>잇슬는가</u> | 〈琴譜歌〉 |
| 3 5 4 4 | |
| 2) <u>가다가</u> <u>알이만나</u> <u>다시무려</u> <u>니거스라</u> | 〈勸義指路辭〉 |
| 3 4 4 4 | |
| 3) <u>간업슨</u> <u>江山風月과</u> <u>함께늘조</u> <u>흥노라</u> | 〈樂貧歌〉 |
| 3 5 4 3 | |
| 4) <u>우리도</u> <u>이방하씨허내야</u> <u>부모공양</u> <u>흥리타</u> | 〈相杵歌〉 |
| 3 7 4 3 | |

退溪의 孝友歌 研究

5) 아마도 만단슈회를 못다일너 흥노라 〈孝友歌〉
 3 5 4 3

退溪의 5편 가사의 결사형식은 第1音步(詩脚)가 모두 3字로 되어 있고, 第2音步는 琴譜歌・樂貧歌・孝友歌 등이 5字, 相杵歌가 7字로 되어 있어, 모두 時調의 第2音步의 5字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勸義指路辭만은 4字가 되어 시조의 종장형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第3音步는 모두 4字로 되어 있고, 第4音步는 琴譜歌와 勸義指路辭 등이 4字, 樂貧歌・相杵歌・孝友歌 등이 3字로 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退溪의 가사 5편 중에 琴譜歌・樂貧歌・相杵歌・孝友歌 등은 시조의 終章性을 유지하고 있어 正型歌辭이고, 勸義指路辭는 시조의 종장성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變型歌辭이다.

다음에, 松江의 4편 歌辭를 보기로 한다.

1) 明月이 千山萬落의 아니비췌던 얼다 〈關東別曲〉
 3 5 5 2

2) 님이야 날인줄모르셔도 내님조초려 흥노라 〈思美人曲〉
 3 7 5 3

3) 각시년 돌이이긌니와 구준비나 되쇼셔 〈續美人曲〉
 3 6 4 3

4) 손이셔 主人드려닐오디 그디권가 흥노라 〈星山別曲〉
 3 7 4 3

松江의 4편 가사의 결사형식은 第1音步가 모두 3字로 되어 있고, 第2音步는 關東別曲이 5字, 思美人曲과 星山別曲이 7字, 續美人曲이 6字로 되어 있어, 모두 時調의 第2音步의 5字를 유지하여 있고, 第3音步는 關東別曲과 思美人曲이 5字, 續美人曲과 星山別曲이 4字로 되어 있고, 第4音步는 關東別曲만이 2字로 되어 있을 뿐 思美人曲・續美人曲・星山別曲은 3字로 되어 있어 松江의 歌辭는 모두 正型歌辭이다
 끝으로, 蘆溪의 8편 歌辭를 보기로 한다.

1) 우리도 聖主을괴옴고 同樂太平 흥오러라 〈太平詞〉
 3 6 4 4

2) 알피에 저술이플은셔되도록 함괴되셔 늘그리라 〈莎堤曲〉
 3 9 4 4

3) 그밖괴 남은일이야 삼긴되로 살렷노라 〈陋巷詞〉
 3 5 4 4

4) 聖代 海不揚波를 다시보려 흥노라 〈船上數〉
 2 5 4 3

5) 獨樂堂 淸風은 가염실가 흥노라 〈獨樂堂〉
 3 3 4 3

6) 中心에 그리온적이어든 보옴고자 흥노라 〈嶺南歌〉
 3 7 4 3

7) 이 ₃ 몸은	이 ₆ 江山風月 _에	늘 ₄ 글 _을	모 ₄ 로 _로 라	〈蘆溪歌〉
8) 이 ₃ 몸은	이 ₆ 江亭風月 _의	하 ₄ 을 _누 를	모 ₄ 로 _리 라	〈小有亭歌〉

蘆溪의 8편 가사의 결사형식은 第1音步가 船上數의 2字를 제외하고는 太平詞・莎堤曲・陋巷詞・獨樂堂・嶺南歌・蘆溪歌・小有亭歌 등에서는 3字로 되어 있고, 第2音步는 陋巷詞와 船上數이 5字, 太平詞・蘆溪歌・小有亭歌가 6字, 嶺南歌가 7字, 莎堤曲이 9字로 되어 있어, 모두 시조의 第2音步의 5字를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서 獨樂堂만은 3字가 되어 시조의 종장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第3音步는 8편이 모두 4字로 되어 있고, 第4音步는 太平詞・莎堤曲・陋巷詞・蘆溪歌・小有亭歌 등이 4字이고, 船上數・獨樂堂・嶺南歌 등은 3字로 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蘆溪의 8편 가사 중에서 太平詞・莎堤曲・陋巷詞・船上數・嶺南歌・蘆溪歌・小有亭歌 등 7편은 正型歌辭이고 獨樂堂은 變型歌辭이다.

이상 세 편의 가사의 결사형식을 보면 退溪와 蘆溪는 각 1편의 變型歌辭를 짓고 있는데 松江은 正型歌辭만을 짓고 있다.

세 편의 17편 가사를 두고 볼 때 15편은 正型歌辭이고, 2편은 變型歌辭이다.

Ⅲ. 結 言

이상에서 논술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1. 孝友歌는 그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가사로, 筆寫本에는 李退溪先生孝友歌라는 표제가 붙어 있으나, 이는 後人이 필사할 때 李退溪先生이 지은 孝友歌라는 뜻에서 붙였음이 분명하기에 本稿에서는 제목을 孝友歌라고 하였다.

2. 本稿는 「退溪의 詩歌文學 研究」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는 작업이기에 歌辭 全文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李相實 編著 「韓國歌辭選集」의 것이다.

3. 이 가사는 父母에게 효도하고 兄弟 간에 友愛할 것을 敎誨하는 일종의 道德敎訓의인 가사로, 그 내용을 문맥에 따라 4段으로 나누어 제 1단은 緒詞, 제 2단은 思親孝道 곧 奉養, 제 3단은 兄友弟恭, 제 4단은 結詞 등으로 살펴 보았다.

4. 孝友歌에 사용된 소재는 모두 173 종류이고, 그 중에서 子息・딸・어버이・父母・父・母・北堂・孝養・奉養・孝義・養親・兄弟・同生・兄・慈兄・弟・大舜・曾參・百里・負米・거울・날(日)・竹筍・얼음(水)・굴(穴)・鯉魚・友愛・孝友・不孝・氣血・몸 등 31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인 시조와 가사에, 또 退溪의 漢・詩文에 사용된 소재와를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이들 소재는 시조에서는 주로 敎誨警戒와 思親孝道에서, 가사에는 道德敎

訓的인 작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재들이었다.

5. 형식은 음보를·음수를·결사형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1) 음보에서는 한국 시가의 운율적 구조는 원래 3음보와 4음보가 함께 사용된 것이지, 결코 漢詩·文의 영향에서 민중고유의 3音步가 4音步로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다.

음보로써 볼 때 孝友歌는 94節(行) 모두가 1節이 4개의 음보로 되어 있다.

또, 退溪의 가사 5편, 松江의 가사 4편, 蘆溪의 가사 8편의 음보를 살펴 보았는데, 1節이 6音步로 된 것이 退溪는 4개, 松江은 2개가 더 사용되고 있을 뿐 대체로 1節(行)이 4개의 음보로 된 정열한 가사임에 비해서 蘆溪의 가사는 1節이 6音步로 된 것이 45개와 3音步로 된 것이 6개가 더 있음을 보았다.

2) 孝友歌는 94節(行) 188句 376音步 1,313字로 되었는데, 이에 사용된 음수들은 7개로, 그 중에서 3 4조가 134회, 4 4조가 29회, 2 3조가 11회, 2 4조가 8회, 3 3조가 3회, 4 3조가 2회, 3 5조가 1회였다.

또, 退溪의 가사 5편, 松江의 가사 4편, 蘆溪의 가사 8편에 대한 음수들을 대비해 보았다.

3) 孝友歌의 결사형식은 시조의 종장형식과 일치하는 3 5 4 3으로 되어 있어 正型歌辭였다.

또, 退溪의 가사 5편, 松江의 가사 4편, 蘆溪의 가사 8편의 결사형식에 대하여 대비해 본 바 退溪의 勸義指路辭와 蘆溪의 獨樂堂단 시조의 종장형식과 같지 않는 變型歌辭였을 뿐 나머지 15편의 가사는 正型歌辭였다.